

제2회 재외동포NGO활동가 대회 (2005년 11월 1일 화 ~ 4일 금)

- 주최 : KIN(Korea International Network)
 - 주관 : 제2회재외동포NGO활동가대회추진위원회(10개 단체)
동북아두레공동체운동, 동북아평화센터, 동북아평화연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남대학교세계한상문화연구원,
중국동포의집·외국인노동자의집, 중국동포타운신문,
해외교포문제연구소, 한국청년연합회(KYC),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 후원 : 재외동포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코리아포커스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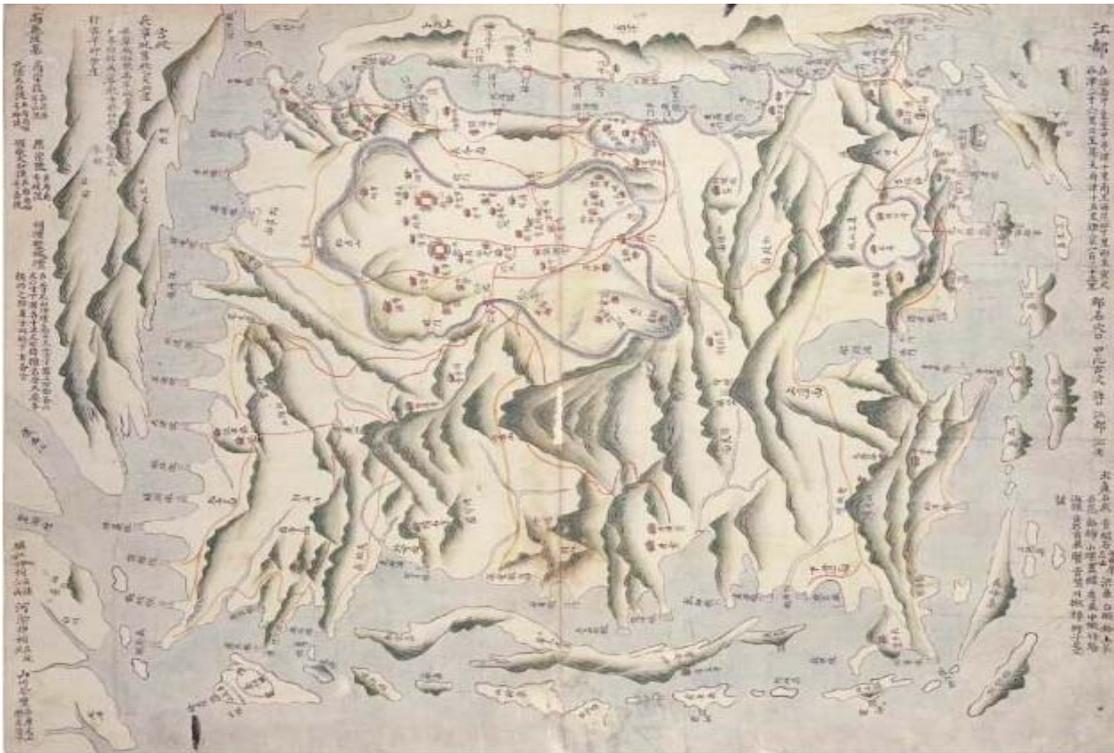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제2회 재외동포NGO활동가대회 역사기행

서대문형무소와 강화도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http://www.kin.or.kr>

자료집 차례

강화도의 역사	156
서대문 형무소	158
전등사	161
초지진	164
광성보	165
강화역사관	167
강화도 조약	169
병인양요	172
신미양요	173

일정

- 08 : 30 장충동 성베네딕수도회 피정의집 출발
- 08 : 50 서대문 형무소 도착
- 10 : 00 출발
- 11 : 30 전등사 도착
- 12 : 30 점심 식사
- 13 : 30 출발
- 13 : 45 초지진 도착
- 14 : 10 출발
- 14 : 25 광성보 동차
- 15 : 30 출발
- 15 : 50 강화역사관 도착
- 16 : 50 출발
- 18 : 00 서울 도착 (저녁식사 및 뒤풀이)

* 자료집 편집 : 박상표()

강화도의 역사

강화도는 삼국시대에서부터 백제·고구려의 중요한 요충지로서 자리잡아왔다. 특히, 고구려와 백제의 최대 격전지로 생각되는 관미성이 강화군 교동도로 추정될 정도 강화도는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로 백제 개로왕이 죽고 수도인 한성이 함락되었는데, 이로써 고구려는 한강 유역을 완전히 차지하게 되었고, 강화도 또한 이때 고구려에 귀속되었으며, 당시 군 이름은 穴口(혈구) 혹은 甲比古次(갑비고차)라고 하였다. 그리고 인접 교동도는 고구려의 高木根縣(고목근현)이 되었다.

그 후 백제와 신라가 동맹을 맺어 한강 유역을 되찾았고, 다시 신라의 영역을 들어가게 되었다. 신라는 한강 유역을 장악함으로써 풍부한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확보하여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때 강화는 海口郡 또는 穴口鎭이라 했다.

강화도는 고려시대에 들어서서 우리 민족사에서 잊지 못할 항쟁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 고려는 1231년에 몽고의 침략을 당했고, 다음해인 1232년 고종은 왕실 귀족을 비롯한 조정관료들과 함께 모두 강화로 천도하였다. 그 후 강화도는 1270년에 개성으로 환도할 때까지 39년 동안 몽고군과 대치하면서 나라를 지킨 투쟁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이때부터 강화를 江都로 불렀으며, 지금도 강화도에는 고려시대 별도인 강도의 왕궁터가 남아 있고 몽고와 항쟁하던 흔적들도 성곽 곳곳에 남아 있다. 한편 고려 무인 정권의 군사적 배경이 되어 몽고와 항쟁해 왔던 三別抄는 개경 환도가 알려지자 즉시 대항하고 나섰다. 그들은 배중손을 중심으로 개경 정부와 대립하는 새로운 항몽 정권을 수립하였으나 곧 진도로 남하하고 말았다.

고려가 몽고와 항쟁하는 와중에서 남긴 가장 훌륭한 업적이라면 팔만 대장경을 조판하였던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당시의 조판을 진행했던 장소와 그 경과를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 한편 고려 청자를 비롯한 고려시대의 보물들도 이곳 강화도에서 출토된 것이 많은데, 고려 청자 가운데에서도 가장 훌륭한 작품으로 평가되는 국보 제133호 靑瓷辰沙蓮花紋瓢注子(청자진사연화문표주자)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것은 일제시대 강화도의 최충현 묘에서 도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고려시대 강화도에서는 남쪽 마니산 정상에 참성단을 다시 쌓아 하늘과 단군에 제사지냈다. 이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국난을 당해 나라를 지키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조선시대 1627년 금나라 3만 군사의 침입을 받은 인조는 평북 차림으로 강화로 피신하여 100일 동안을 머무른 적이 있는데 이 사건이 바로 丁卯胡亂이다. 1636년 청나라 태종이 쳐들어왔을 때는 인조가 미처 강화로 피란하지 못하고 남한산성으로 퇴각했는데, 강화가 청에게 넘어가고 봉림대군과 빈궁 및 여러 대신등 200여 명이 포로로 잡혀가자 항복하고 말았다. 이것이 병자호란이다. 이때 강화도는 종묘 사직을 지키기 위한 背都가 되어 留守와 經歷을 갖추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뒤 효종은 인조 때 당한 치욕을 씻기 위해 북벌을 계획하고 강화 해안에 월곶진, 제물진, 용진진, 광성보, 인화보, 승천보 등과 같은 방어시설을 새로 쌓거나 고쳤다. 그리고 속중은 강화도 해안 전역의 돌출부에 큰 툽니바퀴를 움직이는 작은 툽니바퀴 모양으로 53개(2개는 얼마뒤에 폐지되었다)의 돈대(墩臺)를 설치하여 강화도 전지역을 요새화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서양 세력이 조선을 넘보기 시작했다. 1866년 프랑스 함대가 먼저 항강 어귀 강화에까지 쳐들어온 병인양요와 1871년 미국 함대가 강화를 침략한 신미양요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때마다 강화의 백성들은 외세에 대항하여 번번이 나라를 구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875년 일본 군함이 강화에 침입하여 이른바 운양호사건을 일으켰고, 다음해(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강요되었는데 이것이 이른바 병자수호조약이다. 그로부터 35년 뒤인 1910년 조선은 일본에 의해 완전히 병합되고 말았다.



서대문형무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101번지에 위치한 서대문형무소(西大門刑務所)는 대한제국 말에 일제의 강압으로 감옥이 지어져 80여 년 동안 우리 근·현대사 격동기의 수난과 민족의 한이 서려있는 역사의 현장이자 우리민족의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일제의 대표적인 탄압기관이었다.



일제는 우리나라를 강제 점령하고, 이 땅을 발판 삼아 대륙으로 침략하려는 야욕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면서 그들의 침략에 항거하는 수많은 애국지사들을 투옥시키기 위한 감옥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대한제국시대에 자주독립의 상징으로 건립한 독립문 근처에 1907년부터 대규모로 감옥을 지었다.

이 감옥은 일본인 시텐노가즈마[四天王數馬]의 설계로 착공하여 그때 화폐 약 5만원을 들여 지었고, 480평 규모의 감방과 80평 정도의 부속시설로 수용인원은 500여명 정도였다. 그때 전국 8개 감옥 총 수용인원이 300여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대규모의 감옥이었다. 1908년 10월 21일에 경성감옥(京城監獄)이란 이름으로 문을 연 뒤 일제에게 우리의 국권이 빼앗기자 이에 항거하는 민족독립운동이 전국에서 거세게 일어나고 일제는 수많은 우리의 애국지사들을 체포 투옥시켰다. 수용인원이 증가하자 그들은 마포 공덕동에 또 다른 감옥을 지었고, 이 때문에 1912년 9월 3일에 서대문감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1916년에는 여사(女舍)를 신축했으며, 1919년 3·1운동 때는 3,000여 명을 수감할 수 있는 감옥으로 확장되었다. 청사는 전동(典洞)에 있던 흥사단 건물을 이축(移築)한 것으로, 6·25 전쟁 휴전 직후 현재의 자리로 다시 옮겨 관사(官舍)로 사용하였다. 1923년에는 새 청사와 사형장을 신축하고 5월 5일에 서대문형무소로 이름을 바꾸었다. 1935년에는 제1~6사(舍)등을 신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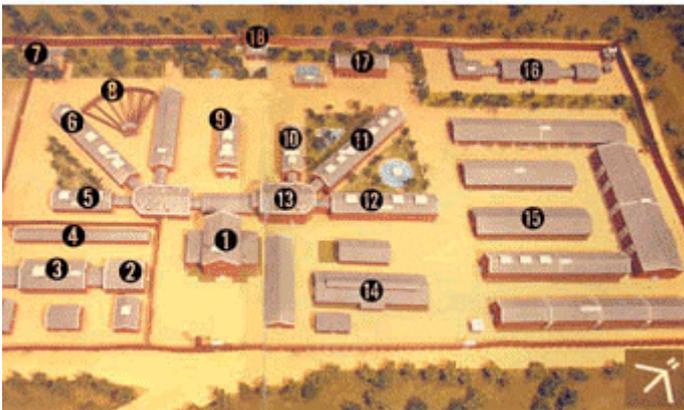
이 구치소의 뿌리는 구한말의 전옥서(典獄署)로서, 1904년 경무청감옥서(警務廳監獄署)로 바뀌고, 1908년 경성감옥(京城監獄)으로 개칭되면서 무악재로 옮긴 이래, 1912년 서대문감옥, 1923년 서대문형무소, 1946년 경성형무소, 1950년 서울형무소, 1961년 서울교도소 등의 명칭을 거쳐 1967년 7월 7일 서울구치소로 개칭되었고, 1987년 경기 의왕시로 옥사를 이전한 이후 사적으로 지정되어 1992년 8월 15일에 '서대문 독립공원'으로 개원하였다. 서대문구에서는 1995년부터 서대문 독립공원 사적지에 대한 성역화사업을 시작하였다. 조국독립을 위해 일제의 침략에 맞서 싸우다 투옥되어 모진 고문과 탄압을 받고 순국하신 애국 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우리 선열들의 자주독립정신을 일깨워 주는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삼기 위해 새롭게 단장하여 '서대문 형무소역사관(西大門刑務所歷史館)'으로 개관하였다.

1987년에 경기도 의왕시로 옮길 때 옥사(獄舍)는 모두 15개동이었으나, 현재는 역사성과 보존 가치를 생각해 7개 동만을 원형대로 보존하였다. 그 중에서 옥사 3개동(제 10·11·12 옥사)과 사형장은 1988년 2월 20일에 사적 제324호로 지정되었다.

일제강점기 때는 주로 민족지도자와 독립운동가, 4·19혁명 이후 1980년대까지는 정치인·기업인·세도가·군장성·재야인사·운동권 학생 등과 이 밖에 살인·강도 등의 흉악범과 대형 경제 사범·간첩·잡범 등 다양한 범법자들이 이곳을 거쳐갔다.

이곳에는 3·1운동 때 유관순 열사가 갇혔던 지하 여자감옥, 윤봉길 의사가 복역중 만들었다는 붉은 벽돌, 강우규 의사가 처형당한 사형장, 여러 독립투사들이 투옥되었던 1평 남짓한 좁은 감옥들이 남아 있다.

옥사배치도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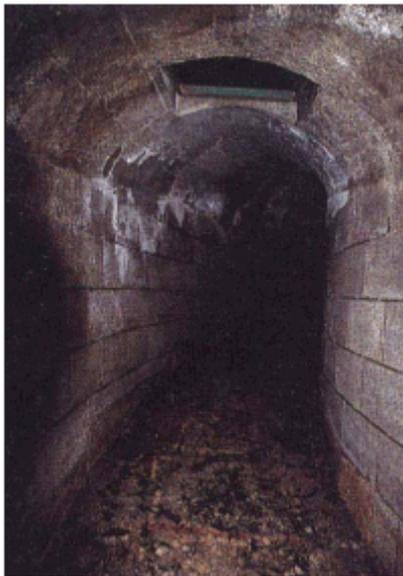


- ① 보안과 청사
- ② 여1옥사
- ③ 여2옥사
- ④ 여공장
- ⑤ 제7옥사
- ⑥ 제8옥사
- ⑦ 사형장
- ⑧ 격벽장
- ⑨ 제9옥사
- ⑩ 제10옥사
- ⑪ 제11옥사
- ⑫ 제12옥사
- ⑬ 중앙사
- ⑭ 취시장
- ⑮ 공장
- ⑯ 병사
- ⑰ 제13옥사 (공작사)
- ⑱ 니병사

시설구분	시설명	용도	층수	비고
수형시설	1~6옥사	미결수 수용	2층	철거
	9옥사	수형자(남)수용	2층	보존
	10~12옥사	수형자(남)수용	2층	보존
	13옥사	공작사	2층	보존
	지하옥사	수형자(여)수용 (취조, 고문)	1층	복원
관리시설	나병사	환자격리수용	1층	보존
	보안과청사	고문 및 취조	지하1, 지상2	보존
	중앙사	수감사 감시	2층	보존
기타시설	사형장 담장, 망루	사형집행 경계시설	1층	보존 일부

서대문형무소의 건축물은 군집형태로 묶여져 있고, 이 중 붉은 담벽·감시탑·출입문·구치감·감방(남사·여사·외국인사)·사형장·일반사무실(보안과·순화교육대)·교회당·공장·창고·취사당·식당·세면장(목욕탕 등)·운동장 등으로 되어 있다. 지붕은 함석이고, 주위 벽은 판자 위에 아연판을 두른 목조이며, 2층 옥사는 감시하기 좋게 T자형 부채꼴로 설계하고, 감방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게 되어 있으며, 복도 천장을 뚫어 철망 사이로 위층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사형장 / 시구문



이 건물은 일제가 1923년에 지은 목조건물로 서대문형무소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투옥된 애국지사들이 서대문형무소로 이감된 후 사형이 집행된 장소이다. 일제의 침략과 만행에 항거하다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어 조국 자주독립의 한을 품은 채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애국선열들의 넋이 서려있는 이곳은 사적 제 324호로 지정되었다.

사형장의 둘레는 높이 5m의 붉은 돌담이 쌓여 있고, 면적은 50㎡이며, 내부에는 개폐식 마루판 위에 사형수가 앉는 의자가 있으며, 그때에 사용한 굵은 동아줄이 내려져 있다. 앞면은 사형을 집행할 때 배석자들이 사용한 긴 의자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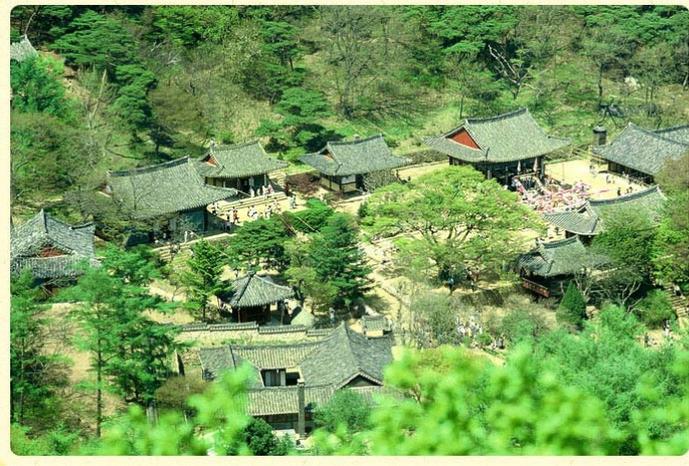
사형장 입구의 삼거리에 하늘 높이 외롭게 자라고 있는 한 그루의 미루나무는 사형장으로 들어가는 사형수들이 붙들고 잠시 통곡했다고 하며, 이 미루나무는 사형수들의 한이 서려 잘 자라지 않는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사형장의 바로 옆에는 사형을 집행한 시신을 형무소 밖 공동묘지까지 몰래 버리기 위해 일제가 뚫어 놓은 비밀통로가 있다. 일제가 그들의 만행을 감추기 위해 폐쇄했으나 1992년 서대문독립공원을 조성할 때 입구에서 40m를 복원하였다.

담장망루

투옥자들의 탈옥을 막고, 동태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했던 담장과 망루의 일부를 원형대로 보존하였다. 1907년에 담장을 설치할 때 나무기둥에 함석을 붙였으나, 현재의 붉은 돌담은 1923년에 설치하였다. 담장의 높이는 4.5m, 길이는 1.161m였으나, 현재는 앞면에 79m, 뒷면에 208m만 남아 있다. 망루는 6개소 중 2개소만 원형대로 보존하였는데, 8면에 감시창이 설치되어 있고 높이는 10m이다. 정문의 망루는 1923년에 설치하였으며, 뒷쪽의 망루는 1930년에 설치한 것이다



전등사



전등사가 창건된 것은 서기 381년(고구려 소수림왕 11년)으로 전해진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처음으로 전래된 것이 서기 372년인데, 처음 전등사를 창건한 사람은 진나라에서 건너온 아도 화상이라고 전한다. 아도화상은 절 이름을 ‘진종사(眞宗寺)’라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근거가 희박한 전설일 뿐이고,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추정된다.

진종사가 역사의 기록에 등장한 것은 고려 고종 46년 때인 1259년인 것으로 미루어 고려 시대에 창건된 사찰이라는 주장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할 것 같다. 1232년, 고려 왕실에서는 몽골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도로 임시 도읍을 정하고 궁궐을 지었다. 그리고 고종은 당시 삼랑성 안에 가궐(假闕)을 지었다. 1232년부터 1270년까지 이어진 이른바 고려의 강화도 천도시기에 전등사에 가궐을 지은 것이다.

<고려사>에 따르면 “고종 46년(1259년), 임금이 삼랑성 안에 가궐을 짓도록 명했다.”는 사실과 함께 5년 뒤인 원종 5년(1264년), “임금이 대불정오성도량을 열어 4개월 동안 베풀었다.”는 기록이 있다. 여기서 대불정오성도량이라 함은 부처님의 가피로 나라의 온갖 재난을 물리치게 하는, 불교 행사를 일컫는다. 원종 임금이 진종사에서 이런 행사를 갖게 한 것은 당시 진종사의 사세(寺勢)가 크게 중흥되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고려 때 강화에서 조성된 팔만대장경 역시 부처님의 가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허황된 ‘호국불교’ 사상에서 나온 것이었다. 고려 조정에서는 대장경을 조성하기 위해 1245년, 강화도에 선원사를 창건했으며, 남해에 분사도감을 설치했다.

고려 왕실에서는 삼랑성 안에 가궐을 지은 후 진종사를 크게 중창시켰으며(1266년), 16년이 지난 1282년(충렬왕 8년)에는 왕비인 정화궁주가 진종사에 경전과 옥등을 시주한 것을 계기로 ‘전등사’라 사찰 명칭을 바꾸었다. 이때는 고려 왕실이 개경으로 환도한 뒤였고, 39년 동안 쓰였던 강화 궁궐터는 몽골군에 의해 폐허로 변하고 말았다.

일반적으로 전등이란 ‘불법(佛法)의 등불을 전한다’는 뜻으로, 법맥을 받아 잇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다. 당시 정화궁주는 인기(印奇) 스님으로 하여금 바다 건너 송나라에서 펴낸 대장경을 구해 전등사에 보관하게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정화궁주의 옥등 설화보다는 송나라에서 전해진 대장경 때문에 전등사로 개칭되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근거가 있다. 그 대장경

속에는 <경덕전등록> 등의 불전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전등사 대조루를 증건할 때의 모연문을 보면 ‘육조의 의발을 상수(相授)하는 뜻에서 전등사’로 개칭했다는 기록도 있다.

이처럼 전등사는 고려 왕실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진 사찰이었던 만큼 그 후에도 충숙왕, 충혜왕, 충정왕 때에 연이어 중수(重修)되었다.

전등사는 조선시대 들어와 몇 차례의 화마를 겪었다. 조선 광해군 때인 1614년에도 화재로 인해 건물이 모두 소실되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지경 스님을 중심으로 한 대중이 재건을 시작해 1621년 2월에는 전등사의 옛 모습을 되찾았다. 지금까지 건물의 건축적인 가치는 물론 ‘나부상’으로 더욱 유명한 전등사 대웅전(보물 178호)도 이때 증건되었다.

숙종 때인 1678년, 조선왕조실록을 전등사에 보관하기 시작하면서 전등사는 왕실종찰로서 더욱 성장했다. 본래 왕실에서는 실록을 4부씩 만들어 궁궐 내의 춘추관과 충주, 성주, 전주 등 네 군데의 사고(史庫)에 보관하도록 했다. 하지만 임진왜란 때 모두 소실되고 전주 사고만 무사했다. 이때 전주 사고본이 보존된 것만 해도 우리 역사에서 천만다행한 일이었다. 조정에서는 임진왜란 후 전주 사고본을 4부씩 옮겨 적게 하여 전주 사고본은 강화도 전등사로 옮겼고, 다른 실록은 봉화군 태백산, 영변 묘향산, 평창 오대산에 각각 보관하게 했다.

1707년, 강화 우수였던 황흙은 사각(史閣)을 고쳐 짓고, 다시 별관을 지어 취향당이라 이름 하였다. 그때부터 정족산 사각은 실록은 물론 왕실의 문서까지 보관하는 보사권봉소로 정해졌다. 이때 왕실의 세보인 선원세보를 비롯해 왕실 문서를 보관하던 건물이 ‘선원각’이었다. 이후 1719년부터 1910년까지 전등사의 최고 승려에게는 도총섭이라는 지위가 주어졌다. 도총섭은 조선시대 최고의 승직을 일컫는 말이다. 1726년에는 영조 임금이 직접 전등사를 방문해 ‘취향당’ 편액을 내렸는가 하면 1749년에는 영조가 시주한 목재를 사용해 전등사의 중수(重修) 불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 때 대조루도 함께 건립되었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전등사는 더욱 빈번하게 왕실의 지원을 받는 사찰로 부각되었다.

조선말기로 접어들면서 전등사는 그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국난을 지키는 요충지 구실을 하기도 했다. 1866년, 프랑스 함대가 조선에 개항을 요구한다는 명목으로 강화도를 점령했다. 이에 맞서 조정에서는 순무영을 설치하고 양헌수 장군 등을 임명하여 프랑스 함대를 물리치게 했다. 이때 양헌수 장군은 휘하 병력을 이끌고 초지진을 건너 정족산성에서 적을 무찔렀다. 조선군을 앞잡아보던 프랑스 함대는 이 전투가 끝난 뒤 크게 전의를 상실하여 조선에서 물러갔다. 프랑스군은 양헌수 부대와 싸우기 직전만 해도 정족산성을 돌파하고 전등사에서 점심을 먹겠노라 공언한 바 있었다.

이 전투에서는 조선의 관군뿐만 아니라 경기·황해도 일대의 포수들, 전등사 사부대중들까지 가세하여 나라의 위기를 구하는 데 힘을 모았다. 조정에서는 전투의 승전을 기리기 위해 양헌수 장군 승전비와 비각을 정족산성 동문 내에 세웠다. 당시 국정의 실권을 쥐고 있던 대원군은 병인양요 후 전등사에 포랑고를 건설하였고, 이듬해인 1872년에는 승군 50명과 총섭 1명을 두게 하였다.

전등사 대웅전 (보물 178호)

석가여래삼존불을 모시고 있는 대웅전은 광해군 13년(1621)에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규모는 앞면 3칸·옆면 3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인 팔작지붕이다.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한 장식구조가 기둥 위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있는 다포 양식이다.



네 모서리기둥 윗부분에는 사람 모습을 조각해 놓았는데 이것은 공사를 맡았던 목수의 재물을 가로챈 주모의 모습이라

는 전설이 전해져 오는데, 재물을 잃은 목수가 주모의 나쁜 짓을 경고하고 죄를 씻게 하기 위해 발가벗은 모습을 조각하여 추녀를 받치게 하였다는 것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3곳의 처마 밑에서는 두손으로 처마를 받치며 벌을 받고 있는 모양새인데 비해, 한 귀퉁이의 것은 한 손으로만 처마를 받치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벌을 받으면서도 피를 부리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우리 선조들의 재치와 익살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의 능숙한 조각 솜씨를 엿볼 수 있고, 조선 중기 이후의 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전등사 범종 (보물 393호)



일제시대 말기 금속류의 강제수탈로 빼앗겼다가 광복 후 부평군기창에서 발견하여 전등사로 옮겨 현재까지 보존하고 있다.

형태와 조각수법에서 중국종의 모습을 한 높이 1.64m, 입지름 1m의 종으로 한국의 종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종꼭대기에는 두마리의 용이 서로 등지고 웅크려서 종의 고리를 이루고 있고, 소리의 울림을 돕는 음통은 없다. 몸통 위 부분에는 8괘를 돌려가며 나열하고, 그 밑으로 종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8개의 정사각형을 돌렸다. 이 정사각형사이에는 명문을 새겼는데, 이 명문으로 중국 하남성 백암산 승명사의 종이라는 것과 북송 철종 4년, 곧 고려 숙종 2년(1097)에 주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초지진 (草芝鎭)



초지진은 강화도 외성(外城) 최남단에 자리한 진이고 김포군 대곶면 대명리와 마주한 곳이다. 1971년에 사적 제225호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4,233m²이다.

1656년(효종 7) 강화유수(江華留守) 홍중보(洪重普)가 처음 설치하였다. 1656년(孝宗 7年)에 처음 설치되었고 1679년에 초지돈, 장자돈, 섬암돈이 축조되면서 초지진에 소속되었다. 166년(현종 7) 병마만호(兵馬萬戶)를 두었다가 1763년(영조 39)에 첨사(僉使)로 승격

시켰는데 이 때의 병력은 병마첨절별사(兵馬僉節別使) 1명, 군관 11명, 사병 98명, 돈군(墩軍) 18명, 목자(牧子) 210명, 진선(鎭船) 3척과 무기 다수가 있었다.

1866년(고종 3) 병인양요(丙寅洋擾) 때 이 곳에서 프랑스 함대의 로즈 소장과 싸웠으며, 1871년(고종 8)에는 미국 아시아함대의 로저스 중장이 이 곳에 침입하였을 때 필사의 방어전을 전개하다 함락된 바 있었고, 1875년(고종 12)에는 일본 군함 운요호(雲揚號)와 이 곳에서 교전하였다. 특히 운요호의 침공은 고종 13년(1876) 강압적인 강화도 수호조약의 체결을 가져옴으로써 일본침략의 문호가 개방되었던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된다.

1971년에 사적 제225호로 지정된 초지진은 모두 허물어져 돈(墩)의 터와 성의 기초만 남아 있었는데 1973년 초지돈만 복원되었다. 돈에는 3곳의 포좌(砲座)가 있고 총좌(銃座)가 100여 곳 있다. 성은 높이 4m 정도에 장축이 100m쯤 되는 타원형의 돈이다. 돈 안에는 조선말의 대포 1문이 포각 속에 전시되어 있고 포각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집 홍살로 되어 있다.

이곳에 전시된 진품 대포 1문은 길이 2.3m, 입지름 40cm의 대포로 일정 때 일본 어느 고관이 뜯어가 자기 별장에 기둥 밑받침으로 쓰고 있었는데 해방직후 장병찬에게 인계되었고 이를 전시케 하였다.

초지돈은 초지진 전방 50보 거리에 있었으며 남쪽에는 장자평돈이 있다. 초지리의 돌출한 지점에 있으며 지금의 김포군 대명리와 마주한 지점으로서 1679년에 축조되어 신미양요 그리고 운양호사건 등 근세에 이르러 외군과 싸워온 격전지이다.



초지석수문은 초지리 뚝에 있으며 조선조 광해군의 명으로 초지와 덕진 사이에 축조한 외성의 수문으로 장대석으로 갑문을 설치했던 수문이다. 무너진지 오래되어 새로히 중수하였다. 진남포대 길상면 초지리 초지진의 남쪽에 있었는데 가장 가까이 시설하여 진과 돈이 상호 연계활동을 하였다.

또한 초지진에는 초지돈, 장자평돈, 섬암돈이 소속되어 있었다. 이 돈대들은 숙종 5년(1679)에 함경도, 강원도, 황해도의 승군 8천명과 어영군 4천 3백명을 동원하여 40일 동안에 걸쳐 49개의 돈대를 축성할 때 함께 이루어진 것이다. 이 때 9개의 포대도 축조되었고 초지진의 남쪽 진남포대에는 대포 12문이, 초지진 앞의 대황산 황산포대에도 대포 6문이 설치되었으나 현재는 초지진만이 남아있다. 지금의 초지진은 1976년에 복원된 것으로 성벽 옆의 소나무에는 당시의 전투를 말해주는 포탄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광성보 (廣城堡)



사적 제 227호. 강화해협을 지키는 중요한 요새로, 강화 12진보(鎭堡)의 하나이다. 광성보라는 명칭은 이곳의 지명에서 유래했다. 광성보는 남으로 덕진진과 초지진, 북으로 용진진과 갑곶진, 월곶진, 제물진, 해안 건너 김포반도의 덕포진 및 문수산성과 더불어 강화해협을 지키던 중요한 요새였다.

이곳은 자연 지형이 옹화 어귀를 지키는 천험한 요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찍이 고려 외성의 중요한 요새 구실을

을 했다. 고려가 몽골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하여 강화도로 천도 한 후에 돌과 흙을 섞어 해협을 따라 길게 성을 쌓았다.

조선시대 광해군 때 헐어진 데를 다시 고쳐 쌓았으며, 1658년(효종 9)에 강화유수 서원이 광성보를 설치하였다. 그 후 숙종 때(1679)에 이르러 완전한 석성(石城)으로 축조하였다.

광성보는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 극동함대와 공방전이 있었고, 1871년 신미양요 때에는 미국의 아시아 함대와 치열한 백병전을 벌인 곳으로 어재연 장군 휘하 전 수비군이 용감히 싸우다 장렬히 순국한 곳이다. 그 해 통상을 요구하며 강화해협을 거슬러 올라오는 미국 극동함대를 초지진·덕진진·덕포진 등의 포대에서 일제사격을 가하여 물리쳤다. 그러나 4월

23일 미국 해병대가 초지진에 상륙하고, 24일에는 덕진진을 점령한 뒤, 여세를 몰아 광성보로 쳐들어왔다. 이 전투에서 조선군은 열세한 무기로 분전하다가 포로 되기를 거부, 몇 명의 중상자를 제외하고 전원이 순국하였다.

광성보는 현재 광성돈대, 손돌목돈대, 용두돈대 모두 3개의 포대로 이루어져 있다. 옛 광성보 소속이었던 오두돈대는 현재 복원중이고, 화도돈대는 복원예정에 있다. 광성돈대 안으로 들어가면 그당시 사용하던 포 세구가 복원되어 있다. 대포들 가운데 가장 큰 것이 홍이포로 홍이포는 포구에서 화약과 포탄을 장전한 다음 포 뒤쪽 구멍에 점화하여 사격하는 포구장전식화포로 사정거리는 700m이며 조선 영조 때부터 주조하여 사용하던 것이다. 화약이 폭발하는 힘으로 포탄은 날아가지만 포탄 자체는 폭발하지 않아 위력은 약한 편이다.

중단 크기의 포는 소포로 홍의포와 마찬가지로 포구장전식화포이며 사정거리는 300m이다. 우리나라 재래식 화포중 가장 발달된 형태를 갖추고 있다 한다. 가장 작은 불랑기는 임진왜란을 계기로 널리 사용된 화승포로 포1문에 다섯 개에서 아홉 개의 자포를 결합하여 연속 사격 할 수 있는 발달된 화기이다.

광성돈대와 안해루를 지나 산책로로 다듬어져있는 길을 따라 오르면 좌측엔 신미양요 순국 무영용사비와 쌍충비각이 있고 우측엔 신미순의총이 있다. 쌍충비각은 신미양요 전투를 지휘했고 전사한 어재연 장군과 어재순 두 형제의 충성심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각이다. 어재연 장군은 조선 말기의 장수로서 현종 7년(1841)에 무과에 급제하여 고종 3년(1866) 공충도 병마 절도사가 되었다. 이 해에 병인양요가 일어나자 우군 선봉장으로 강화도 광성진을 지켰고, 1871년에는 진무 중군으로 광성진을 지키다가 미군과 격전 끝에 전사하였다. 전사 후 그의 충절을 기리어 병조판서 겸 지삼군 부사의 관직이 주어지기도 했다.

당시 신미양요 전투가 끝나고 시체를 수습해보니 350여명이 전투에 임했는데 50여 구의 시체만 남아있었다 한다. 군사들은 열세한 무기에도 끝까지 싸웠고 부상당하여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되면 미군의 포로가 되는것을 수치로 생각,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어 자결하였다고 한다. 당시 전투에 참가했던 미 해군장교 브레이크 중령의 전사기록을 보면 "미국의 남북전쟁에서도 이렇게 좁은 지역에서 48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적이 없다"라고 술회할 정도로 그 당시 광성보 전투는 굉장히 치열했다고 전하며, 우리 측 수비군이 모두 전사한데 비해 미국은 3명의 전사자와 7명의 부상자를 냈을 뿐이라 한다.

신미순의총은 이때 남아있던 시신들을 화장시켜 한묘에 7-8인씩 함께 합장한 곳이다. 음력으로 4월 24일이면 강화군에서는 넋을 기리기 위해 광성제를 지내고 있다. 총을 지나 오른편에 강화 53돈대 중의 하나로 숙종 때 축조된 손돌목돈대가 있다. 광성보에서 가장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강화 일대를 훤히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으로 이 돈대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

고려 23대 고종이 몽고의 침입을 피해 강화도로 피신하던 중 광성보를 지나자 갑자기 뱃길이 막혔다. 피신 길에 있던 왕은 뱃사공인 손돌의 계략이라 여기고 그를 죽이라 명령했다. 손돌은 이곳의 지형으로 인한 것이라 말했지만 왕은 손돌의 말을 믿지 않았다. 손돌은 뱃길

앞에 바가지를 띄우고는 그 바가지가 떠가는 대로만 가면 뱃길이 트일 것이라 알려주고는 처형을 당하였다. 결국 왕은 손돌이 가르쳐준대로 바가지를 띄워 무사히 강화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어왔다. 왕은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크게 뉘우쳐 말머리를 베어 손돌의 넋을 제사 지내니 그제야 풍량이 그쳤다고 한다. 그 후로 사람들은 덕진진 앞 좁은 독길을 손돌목이라 불렀다. 그 앞산에는 손돌의 무덤이 있고, 해마다 손돌이 죽은 10월 20일 경에는 큰 바람이 불어 손돌의 넋이 아직도 그곳에 있음을 암시한다고 한다.

용두돈대 바로 밑을 흐르는 곳이 물이 빙빙 돌며 파도가 험하기로 유명한 손돌목이다. 용두돈대 앞은 여울진 목으로서 수면에 돌이 많은 것이 특징으로 배가 들어오기엔 곤란한 지점이다. 용두돈대는 광성보에 소속된 돈대 중 가장 아름다운 돈대로 해협을 따라 용머리처럼 쭉 내민 암반을 이용해 축조되었다. 고려 때부터 천연의 요새였던 이곳은 숙종 5년(1679)에 축조되었던 것으로 이후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때 무너진 것을 다른곳과 함께 1977년에 보수한 것이다.

강화역사관

강화역사관은 건평 279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다. 전시실은 4개의 주전시실과 옥외전시실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역사관의 유물 전시상황을 보면, 제1전시실에 42점, 제2전시실에 87점, 제3전시실에 15점, 제4전시실에 20점, 수장고에 416점으로 총 580점이 있다.

제 1전시실에는 자기류 2점, 석재류 37점, 철재류 3점이 전시되고 있다. 제 1전시실은 참성단을 비롯하여 천문도, 고인돌, 조선시대 관복을 디오라마로 표현하였으며, 선사시대 유물인 빗살무늬 토기 등 구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까지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강화의 유적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문화유적 분포 모형도를 터치스크린과 연결하여 해당 유적지를 손으로 클릭하면 모형도에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 강화의 유적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제 2전시실에는 자기류 53점, 석재류 3점, 목초류 4점, 철재류 15점, 지류 2점, 서적 9점, 섬유류 1점이 전시되어 있다. 제 2전시실은 강화인의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곳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팔만대장경을 디오라마로 재현하여 제작과정을 누구나 알기 쉽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작된 경판을 이용하여 직접 인쇄 할 수 있도록 체험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보물 제11-8호로 지정되어 있는 강화동종을 비롯하여 철종의 등급을 위해 모시려 오는 모습이 12병풍으로 묘사 된 강화행렬도,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유물인 청자, 백자 등의 자기류와 고서, 강화에서만 생산되는 화문석과 반달이가 전시되어 있다.

제 3 전시실에는 목초류 1점, 철재류 9점, 서적 5점이 전시되고 있다. 제 3전시실은 몽고 침략시 항전을 위한 고려의 천도와 병자호란 등 국난이 닥칠 때마다 자주정신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강화도의 지리적 특성 및 충의정신을 소개하는 곳으로서 5진7보53돈대의 방어시설인 성 축조 모습이 재현된 축성디오라마, 개경환도에 불만을 품고 궤기하여 대몽항쟁의 중심세력으로 활동한 삼별초가 몽고와의 항쟁을 위한 근거지였던 강화를 떠나 진도로 떠

나는 모습을 재현한 삼별초 대몽항쟁 디오라마, 정묘호란과 병인양요시 유물인 조총과 활 등이 전시되어 있다.

제 4 전시실에는 철재류 19점, 섬유류 1점이 전시되고 있다. 제 4 전시실은 우리나라의 개화의 관문으로서의 역할과, 구한말 서양세력의 잦은 침략에도 굴하지 않은 강화인의 자주정신을 소개한 전시실이라 할 수 있다. 병인양요시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과 전투하는 장면을 재현한 정족산성 전투 디오라마와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끈 양현수 장군의 영정을 비롯하여 신미양요시 광성보에서 미군의 침략에 대항하여 싸운 모습을 재현한 광성보 전투 디오라마, 그리고 이 전투에 맞서 용감이 싸운 어재연 장군의 영정이 전시되어 있다. 강화군에 설치된 5진7보53돈대와 8포대의 국방시설을 재현한 화망구성도와 강화포대 모형을 재현하고 이와 관련된 영상을 재현된 공간에 계속 상영하여 관람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그리고 구한말 강화에서 사용된 소포 및 불량기포 등 구한말 총통류가 전시되어 있다.

한편 수장고에는 자기류 128점, 석재류 38점, 목초류 72점, 철재류 82점, 지류 16점, 서적 77점, 유리 3점이 전시되지 않은 채 보관되어 있다.

옥외 전시관에는 금표, 하마비, 해선 망어선이 있다. 금표는 조선시대 경고문의 성격을 가진 금석문으로, 조선 숙종(1703) 때 세운 양면비이다. 금표는 높이 80.5cm, 폭 68.5cm, 두께 30cm이며, 비문 전면에 放牲畜者杖一百 棄灰者杖八十(가축을 놓아기르는 사람은 곤장 100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은 곤장 80대)라고 새겨져 있다.

하마비는 높이 132cm, 폭 45cm, 두께 19.5cm이고, 향교 또는 사당 앞에 세워 경건한 마음을 준비토록 하는 조선시대 경고문의 성격을 가진 금석문이다. 본래 강화 갑곶리에 있던 것을 다른 비석들과 함께 2000년 강화역사관에 모아 놓았다.

해선 망어선은 길이 15m, 폭 6m, 높이 3m이고, 고려시대부터 전래된 물고기 운반선인 시선배의 한 변형으로 정확한 출현시기는 확실치 않으나 대략 조선 후기로 추측되며, 이물(전면)과 고물(후면)이 아둔하게 뭉통하고 배의 밑바닥이 평탄하여 멍텅구리배 또는 해선망어선이라고 부르지만 강화에서는 곶배라고 한다. 주로 조석간만의 차가 큰 해역, 특히 협수로에서 배를 고정시키고, 상·하의 수해와 암해에 자루그물을 설치, 조류의 흐름에 의해서 1일 4회 조업하며, 주로 갯새우를 어획하였다.

강화도조약

한·일수호조약(韓日修好條約)·병자수호조약(丙子修好條約)이라고도 한다. 이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조선과 일본 사이에 종래의 전통적이고 봉건적인 통문관계(通文關係)가 파괴되고, 국제법적인 토대 위에서 외교관계가 성립되었다. 이 조약은 일본의 강압 아래서 맺어진 최초의 불평등조약이라는 데 특징이 있다. 대원군의 쇄국정책에 맞서 개화론자들은 부국강병을 위해서 개화사상을 도입하고 문호를 개방하여 대외통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즈음 조선 조정 내에서의 권력투쟁으로 대원군이 해야하게 되자 이러한 국내의 정황을 탐문한 일본은 1875년 통교교섭을 위해 조선에 사신을 파견해왔으나 교섭은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일본 정부는 측량을 병자하여 군함 운요호[雲揚號]를 조선 근해에 파견하여 부산에서 영흥만(永興灣)에 이르는 동해안 일대의 해로측량과 아울러 함포(艦砲)시위를 벌였다. 또한 운요호를 강화도 앞바다에 재차 출동시켜 초지진(草芝鎭)의 수비병들이 발포하는 사태를 유발하게 하였다. 1876년 정한론(征韓論)이 대두되던 일본 정부에서는 전권대신(全權大臣) 일행을 조선에 파견하여 운요호의 포격에 대하여 힐문함과 아울러 개항을 강요하였다. 2월에는 일본 사신 일행이 군함 2척, 운송선(運送船) 3척에 약 400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강화도 갑곶(甲串)에 상륙하여 협상을 강요해왔다. 이에 조선 정부는 국제관계의 대세에 따라 수호통상의 관계를 맺기로 결정하고 신현(申楨)을 강화도에 파견하여 일본 사신 구로다 기요타카[黒田清隆]와 협상하게 한 결과, 수호조약이 체결되었다.

일본의 무력시위 아래 체결된 조약은 모두 12개조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는 일본의 정치적·경제적 세력을 조선에 침투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제1조에서 조선은 자주국으로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의 목적은 조선에서 청(淸)나라의 종주권을 배격함으로써 청나라의 간섭없이 조선에 대한 침략을 자행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데 있다. 제2조에서 조약이 체결된 후 조선 정부는 20개월 이내에 부산과 그 밖의 2개 항구를 개항할 것을 규정하고, 2개 항구의 선정은 일본의 임의에 맡길 것을 주장하였다. 그 결과 동해안에는 원산이, 서해안에는 인천이 각각 선정되었으나, 다만 인천항으로부터의 미곡 수출만은 금지되었다.

또한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개항장 내에 조계(租界)를 설정하여 그곳에서의 일본 상인의 자유로운 무역과 가옥의 조영(造營) 등 거주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였다. 제7조에서는 일본이 조선의 연해(沿海)·도서(島嶼)·암초(岩礁) 등을 자유로이 측량하고 해도(海圖)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제8조와 제10조에는 개항장에서의 일본인 범죄자들에 대해 현지에 파견된 일본영사가 재판한다는 치외법권의 조항이 명시되었다. 이 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은 개항장을 통해서 일본인을 조선에 침투시키고, 여기에 조차지(租借地)를 확보하여 일본세력의 전초지로 삼고자 하였다. 아울러 치외법권을 설정하여 일본인 상인들의 불법적이고 방자스런 행동에 대해서 조선의 사법권(司法權)이 미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불평등한 조약으로 하여 조선은 서양 여러 나라와 통상을 시작하게 되고,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서양의 신문명을 수입하는 반면에 열강의 침략을 받게 되는 시발점이 되었다.

수호조규(修好條規)

대일본국과 대조선국은 원래부터 우의를 두터이 하여온 지가 여러 해 되었으나 지금 두 나라의 우의가 미흡한 것을 고려하여 다시 옛날의 좋은 관계를 회복하여 친목을 공고히 한다. 이는 일본국 정부가 선발한 특명 진권 변리 대신인 육군 중장 겸 참의 개척 장관 흑진청룡(구로다 기요타카)과 특명 부진권 변리 대신인 의관 정상형(이노우에 가오루)이 조선국 강화 부에 와서 조선국 정부가 선발한 관중추부사 신현과 부총관 윤자승과 함께 각기 지시를 받들고 조항을 토의 결정한 것으로써 아래에 열거한다.

제1조. 조선국은 자주 국가로써 일본국과 동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이제부터 양국은 화친한 사실을 표시하려면 모름지기 서로 동등한 예의로 대우하여야 하고 조금이라도 상대방의 권리를 침범하거나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우선 이전부터 사귀어온 정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여러 가지 규례들을 일체 없애고 되도록 너그러우며 융통성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영구히 서로 편안하도록 한다.

제2조. 일본국 정부는 지금부터 15개월 뒤에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여 조선국 경성에 가서 직접 예조판서를 만나 교제 사무를 토의하며 해당 사신이 주재하는 기간은 다 그때의 형편에 맞게 정한다. 조선국 정부도 또한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여 일본국 동경에 가서 직접 외무경을 만나 교제 사무를 토의하며 해당 조선국 사신이 주재하는 기간도 역시 그 때의 형편에 맞게 정한다.

제3조. 이제부터 두 나라 사이에 오고가는 공문은 일본은 자기 나라 글을 쓰되 지금부터 10년 동안은 따로 한문으로 번역한 것 한 본을 첨부하며 조선은 한문을 쓴다.

제4조. 조선국 부산 초량항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 공관이 세워져있어 양국 백성들의 통상 지구로 되어왔다. 지금은 응당 종전의 관례와 세견선 등의 일은 없애버리고 새로 만든 조약에 준하여 무역 사무를 처리한다. 조선국 정부는 제5조에 실린 두 곳의 항구를 개항하여 일본국 백성들이 오가면서 통상하게 하며 해당 지방에서 세를 내고 이용하는 땅에 집을 짓거나 혹은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집을 짓는 것은 각기 편리대로 하게 한다.

제5조.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5도 중에서 연해의 통상하기 편리한 항구 두 곳을 골라서 지명을 지정한다. 개항 기간은 일본 역서로는 명치 9년 2월, 조선 역서로서는 병자년 2월부터 계산하여 모두 20개월 안으로 한다.

제6조. 이제부터 일본국의 배가 조선국 연해에서 혹 큰 바람을 만나거나 혹 뿔 나무와 식량이 떨어져서 지정된 항구까지 갈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가닿은 곳의 연안 항구에 들어가서 위험을 피하고 부족되는 것을 보충할 수 있으며 배의 기구를 수리하고 뿔나무를 사는 일 등은 그 지방에서 공급하며 그에 대한 비용은 반드시 선주가 배상해야 한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지방의 관리와 백성들은 특별히 진심으로 돌보아서 구원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데가 없도록 하며 보충해 주는 데서 아낌이 없어야 한다. 혹시 양국의 배가 바다에서 파괴되어 배에 탔던 사람들이 표류되어 와닿았을 경우에는 그들이 가닿은 곳의 지방 사람들이 즉시

구원하여 생명을 건져주고 지방관에 보고하며 해당 관청에서는 본국으로 호송하거나 가까이
에 주재하는 본국 관리에게 넘겨준다.

제7조. 조선국 연해의 섬과 암초를 이전에 자세히 조사한 것이 없어 극히 위험하므로 일본
국 항해자들이 수시로 해안을 측량하여 위치와 깊이를 재고 도면을 만들어서 양국의 배와
사람들이 위험한 곳을 피하고 안전한 데로 다닐 수 있도록 한다.

제8조. 이제부터 일본국의 정부는 조선에서 지정한 각 항구에 일본 상인을 관리하는 관청을
수시로 설치하고 양국에 관계되는 안건이 제기되면 소재지의 지방 장관과 만나서 토의처리
한다.

제9조. 양국이 우호관계를 맺은 이상 피차 백성들은 각기 마음대로 무역하며 양국관리들은
조금도 간섭할 수 없고 또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도 없다. 만일 양국 상인들이 값을 속여서
팔거나 대차료를 물지 않는 등의 일이 있으면 양국 관리들이 빚진 상인들을 엄히 잡아서 빚
을 갚게 한다. 단 양국 정부가 대신 갚아줄 수는 없다.

제10조. 일본국 사람들이 조선국의 지정한 항구에서 죄를 저질렀을 경우 만일 조선과 관계
되면 모두 일본국에 돌려보내어 조사 판결하게 하며 조선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 경우 일본
과 관계되면 모두 조선 관청에 넘겨서 조사 판결하게 하되 각기 자기 나라의 법조문에 근거
하며 조금이라도 감싸주거나 비호함이 없이 되도록 공평하고 정당하게 처리한다.

제11조. 양국이 우호관계를 맺은 이상 따로 통상 규정을 작성하여 양국 상인들의 편리를 도
모한다. 그리고 지금 토의하여 작성한 각 조항 중에서 다시 보충해야 할 세칙은 조목에 따
라 지금부터 1개월 안에 양국에서 따로 위원을 파견하여 조선국의 경성이나 혹은 강화부
에서 만나 토의결정한다.

제12조. 이상의 11개 조항을 조약으로 토의 결정한 이날부터 양국은 성실히 준수시행하며
양국 정부는 다시 조항을 고칠 수 없으며 영구히 성실하게 준수함으로써 우의를 두텁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조약 2분을 작성하여 양국에서 위임된 대신들이 각기 날인하고 서로
교환하여 증거로 삼는다.

대조선국 개국 485년 병자년 2월 2일

대관 관중추부사 신헌
부관 도총부 부총관 윤자승

대일본 기원 2536년 명치 9년 2월 6일

대일본국 특명 전권 변리 대신 육군 중장 겸 참의 개척 장관 흑전청룡(구로다 기요타카)
대일본국 특명 부전권 변리 대신 의관 정상형(이노우에 가오루)

병인양요 (丙寅洋擾)

대원군은 병인년(1866) 정초부터 천주교 금압령(禁壓令)을 내려, 몇 개월 사이에 프랑스 선교사 12명 가운데 9명을 비롯하여 남종삼(南鍾三)·정의배(丁義培) 등 한국인 천주교도 8,000여 명을 학살하였다.

5월 조선을 탈출한 리델 신부는, 중국 텐진[天津]에 주둔한 프랑스 인도차이나함대 사령관 로즈 제독에게 한국에서 일어난 천주교도 학살사건을 알렸다. 보고를 받은 베이징[北京] 주재 프랑스 대리공사는 청국정부에 공한(公翰)을 보내어 한반도로 진격할 결심을 표명하고, 이후 어떠한 사태가 발생하든 청국정부는 이에 간섭할 수 없다고 통고하였다. 청국 총리아문사무(總理衙門事務)의 공한을 통해 프랑스 동태를 알게된 대원군은, 천주교도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변경(邊境)의 수비를 굳게 하였다.

9월 18일 리델 신부와 한국인 신도 3명의 안내로, 로즈 제독이 인솔한 프랑스군함 3척은 인천 앞바다를 거쳐 양화진(楊花津)을 통과하여, 서울 근교 서강(西江)에까지 이르렀다. 극도로 긴장한 조정에서는, 어영중군(御營中軍) 이용희(李容熙)에게 표하군(標下軍)·훈국마보군(訓局馬步軍)을 거느려 경인연안을 엄중 경비하도록 하였다. 프랑스 함대는 이러한 경비태세에 불리함을 느꼈는지, 9월 25일 강류(江流)·연변만 측량하고 중국으로 퇴거하였다.

그러나 10월 로즈 제독은 순양전함(巡洋戰艦) 게리에르를 비롯, 모두 함대 7척과 600명의 해병대를 이끌고 부평부(富平府) 물치도(勿淄島:芍藥島)에 나타났다. 10월 14일 이 중 4척 함정과 해병대가 강화부(江華府) 갑곶진(甲串津) 진해문(鎭海門) 부근의 고지를 점거하였다. 프랑스군은 한강수로의 봉쇄를 선언하고, 16일 전군이 강화성을 공격하여 교전 끝에 이를 점령하고, 무기·서적·양식 등을 약탈하였다. 조선은 이경하(李景夏)·신현(申櫛:申觀浩)·이기조(李基祖)·이용희·한성근(韓聖根)·양헌수(梁憲洙) 등 무장들에게, 서울을 위시하여 양화진·통진(通津)·문수산성(文殊山城)·정족산성(鼎足山城) 등을 수비하도록 하였다.

19일 일단 프랑스측에게 격문(檄文)을 보내어, 선교사 처단의 합법성과 프랑스함대의 불법 침범을 들어 퇴거할 것을 통고하였다. 로즈는 회답을 통하여 선교사 학살을 극구 비난하고, 그 책임자를 엄벌할 것과, 전권대신을 파견하여 자기와 조약의 초안을 작성하라고 맞섰다. 10월 26일 프랑스군 약 120명은 문수산성을 정찰하려다 미리 잠복, 대기중인 한성근의 소부대에게 27명이 사상되는 등 처음으로 막대한 인명손실을 입었다. 이로부터 민가·군영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포격을 가했으며, 이러한 만행은 황해도 연안(延安)에까지 미쳤다.

11월 7일 프랑스 해병 160명은 대령 올리비에의 지휘로 정족산성을 공략하려다가 잠복·대기 중인 양헌수가 이끈 500명 사수들에게 일제히 사격을 받아 사망 6, 부상 30여 명의 손실을 입고 간신히 갑곶으로 패주하였다. 정족산성에서의 참패는 프랑스군의 사기를 크게 저상시켜, 로즈 제독도 조선 침공의 무모함을 깨닫고 철수를 결정하였다.

11월 11일 프랑스군은 1개월 동안 점거한 강화성을 철거하면서, 장녕전(長寧殿) 등 모든 관아에 불을 지르고 앞서 약탈한 은금괴(銀金塊:당시 화폐로 환산하여 3만 8000달러)와 대량의 서적·무기·보물 등을 가지고 중국으로 떠났다. 이로써 세계정세에 어두운 대원군은 그 기세를 돋구어, 전국에 척화비(斥和碑)를 세우는 등 쇄국양이(鎖國攘夷)정책을 더욱 굳히고, 천주교 박해에도 박차를 가하였다.

그러나 구미열강은 이를 계기로 조선을 청국의 종속국가가 아닌 독립한 주권국가로 인식하여, 종래의 한·청 관계를 재검토하였다. 프랑스군이 탈취한 많은 서적·자료 등은, 뒷날 유럽사람들이 한국·동양을 연구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신미양요 (辛未洋擾)

1871년(고종 8) 미국이 1866년의 제너럴셔먼호(號) 사건을 빌미로 조선을 개항시키려고 무력 침략한 사건. 당시 대(對)아시아팽창주의정책을 추진한 미국은 1866년 8월 제너럴셔먼호사건을 계기로 두 차례 탐문항행을 실시하면서 셔먼호사건에 대한 응징과 조선과의 통상관계 수립을 목적으로 1871년 조선을 침략하였다. 주청전권공사 F.F.로우가 전권을 위임받고, 조선원정을 명령받은 아시아함대 사령관 J.로저스는 군함 5척, 함재대포 85문, 해군과 육전대원 총 1,230명을 이끌고 5월 16일 일본의 나가사키[長崎] 항구를 출발하였다. 19일 남양만에 도착한 미군은 뱃길을 탐사하면서 북상, 물치도를 본 함대의 정박지로 정하였다. 미군은 조선에 탐측 승낙을 일방적으로 통고한 뒤 서울의 관문인 강화도 해협 수로의 측량과 정찰을 목적으로 두 척의 군함을 파견하였다. 당시 밖으로 강력한 쇄국정책을 실시하던 흥선대원군은 미군의 불법 영해침범을 경고하고 즉시 철수를 요구하였다.

미군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광성진으로 접근해오자 조선군은 경고용 포격을 가하였고 이에 미군은 일단 물러났다. 그러나 미군은 조선군의 경고용 사격을 빌미로 삼아 오히려 조선정부에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조선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미군은 6월 10일 포함 2척을 앞세우고 육전대원 644명을 강화도의 초지진에 상륙시켜 무력으로 점령하고, 이어 덕진진·광성진을 차례로 점령하였다. 그러나 6월 11일의 광성진전투에서 미군 역시 피해가 많아 이튿날 물치도로 철수하였다. 미군은 이곳에서 조선정부를 상대로 위협적인 외교적 수단으로 조선을 개항시키려 하였으나, 흥선대원군의 단호한 쇄국정책과 조선 민중의 저항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미국의 아시아함대는 조선에서 아무런 성과없이 일본으로 철수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흥선대원군은 서울의 종로와 전국 각지에 척화비(斥和碑)를 세워 쇄국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아직 봉건적 체제에 머물러 있던 조선이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운 프랑스와 미국의 두 차례에 걸친 무력침략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서구 열강의 침략에 맞서 민족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조선 민중의 반침략 의지 때문이었다.